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LOST SOUL ATLAS

가제 :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아틀라스

저자 : Zana Frailoon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20년 7월 2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9-11세 문학



* "아름답게 쓰여진 현명하고 심오한 우화, 깊은 여운을 남긴다." -2020 CILIP 카네기 메달 수상자, 안토니 맥고웬

* "당신을 두근거리게 하는 동시에 울게 만드는 풍부한 언어를 사용한 소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매력적인 이야기" -트리시아 애덤스

트위그는 아버지 몰래 밤에 살짝 빠져나와 암시장으로 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갔다. 하지만 트위그는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았고 그 후 트위그는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결국 트위그는 거리의 소년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역시 길 위에서 살고 있는 명랑한 소매치기 소년 '플리'라는 한 소년을 만나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트위그는 노숙자로 살면서 늘 배척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당하는 존재로 살면서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 트위그는 플리와 함께 도둑질을 시작했고 도둑질을 통해 얻은 것들 중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두 친구는 서로가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트위그는 지상에서의 어렵풋한 기억만 가진 채 사후 세계에서 깨어났다. 트위그는 어쩌다 이곳으로 온 것일까? 트위그는 삶과 죽음, 죽음 그 자체의 공포 가운데에서 자신의 운명이 시험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수상작 『The Bone Sparrow』의 저자의 또 다른 날카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신작이다.

태초에 신들은 세계와 창조물들을 다 만들어낸 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인간들은 늘 즐거웠다. 인간들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인간들에게는 늘 지켜보고 싶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고 새롭게 탐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결국 신들은 인간들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질투심을 느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잊고 '무지의 행복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간들의 소중한 추억을 사후 세계의 가장자리로 쫓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겨울 아침의 신'은 대체 추억이 무엇인지 느껴보기 위해 인간들의 기억을 빼앗아 자신들에게 주입했고 냄새와 장면, 소리와 감정을 느끼며 그제서야 삶의

맛을 맛보았고 더 강렬한 기억과 느낌을 원했다. 신들은 세상에 전쟁을 일으켰고 환난을 들이부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신들에게 추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죽은 인간의 영혼들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사후 세계로 도착했고 신들은 날마다 강렬한 추억의 맛을 보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트위그는 눈 앞에 있는 전광판에 쓰인 '사후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을 보게 되었다. 간판 불빛을 본 트위그는 문득 플리와 피시앤칩스 가게에서 먹을 것을 샀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트위그가 더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위해 애쓰면 애쓸 수록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꼭 누군가로 인해 기억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뻗어 있는 어둠이 있는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뒷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곧 그는 '당신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황금 대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신적 고통은 다 버리세요.'라고 적힌 표지판을 발견 했다.

얼마 후 하늘에서 트위그 쪽으로 이상한 뼈가 떨어졌는데 그 뼈에서 갑자기 발톱 뼈, 다리, 목, 날카로운 부리, 날개, 해골이 솟아나더니 까마귀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 새는 트위그에게 자신의 이름은 '크룩'이며 트위그가 도착한 이 사후 세계에서 그의 수호자로서 트위그를 안전하게 황금의 문 즉, 천국까지 인도하여 '위대한 망각의 일부'가 되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트위그는 크룩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한 음악 소리를 들었고 그 음악 소리를 듣자 아버지와 암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트위그는 그 음악을 계속 듣기 위해 음악이 들려오는 쪽으로 계속 달려갔다. 크룩은 그 음악 소리를 내는 주인공은 바로 '모으는 자'이며 신들만큼 이곳에 오래 있었고 신들보다 세상에 대한 이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곧 노래 소리가 희미해지더니 드디어 그 '모으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허연 머리카락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한 노인 여성이었고 수백 마리의 으르렁거리는 늑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노인은 자신을 말리는 크룩에게 짐승 같은 분노를 내뿜으며 트위그에게 다가와 트위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트위그에게 황금의 문으로 들어가면 지상의 모든 기억과 함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문을 열어줄 해골 열쇠와 해골 가방인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아틀라스'라는 것을 주었다. 트위그가 그 것을 여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기억을 되찾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 자신이 왜 죽었는지 알아내고 아직도 길거리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플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었다. 트위그는 '추격자'들의 손아귀를 벗어나 그 경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친구와 가족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과 인간 정신이 가진 놀라운 힘에 관한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자나 프렐리온 (Zana Fraillon)은 남편과 세 아들과 함께 호주 빅토리아에 살고 있다. 그녀는 아이를 갖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호주에서 그림책과 중급 YA 소설을 출판한 바 있다.

제목 : THE GREAT GODDEN

가제 : 그 해 여름, 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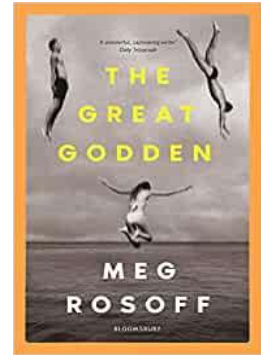
저자 : Meg Rosoff

출판사: Bloomsbury YA

발행일: 2020년 7월 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소설 속 각 문장들은 농담, 통찰력 혹은 더 많은 것을 열망하게 만드는 관찰력으로 엮어져 있다. 영리하고 유머러스한 소설." - 「선데이 타임즈」
- *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을 떠올리게 하는 첫사랑과 잃어버린 순수함을 향한 끔찍한 향수와 달콤한 통증에 관한 책." - 「옵저버 (이달의 YA 소설)」

모두들 사랑에 빠지는 일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책의 주인공 (성별도, 이름도 밝혀지지 않음, 다만 남성 청소년임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음, 편의상 'A'로 표기.) A는 주변에 있는 커플들이나 사랑과 욕망에 들끓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늘 '사랑'과 '욕망'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런던을 떠나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인, 아름다운 외모에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매티, 승마에 푹 빠져있는 탬신, 자연 탐험에 열정적인 알렉스와 부모님과 함께 휴양지에 갔다가 '킷고든'이라는 남자 아이를 만났고 사람들이 하던 모든 말들이 전부 사실임을 깨달았다. 이 소설은 여름 동안 다사다난한 일을 겪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자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꿈결 같은 여름,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린 그 여름에 관한 이야기다.

매년 학기가 끝나면 A 가족은 차 안이 잡다한 물건으로 가득 차 창 밖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짐을 싣고 여름마다 늘 가는 해변으로 향했다. A네 가족이 머물게 될 집은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매년 A의 가족과 여름을 보내는 대학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아빠의 훨씬 어린 사촌 호프와 그녀의 남자친구 말콤이 먼저 도착해 A의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호프와 말콤은 A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모두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음을 터트리면서 최고의 날씨와 최고의 여름을 즐길 준비를 시작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커플인 호프와 말콤은 A가 보기에 자신의 부모님보다 더 흥미로워 보이는 커플이었다. 그 누구도 그 푹 부러진 호프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미남 배우 말콤과 지속적인 안정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제 12년째 함께 하고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16세에 섹스의 여신이 된 매티는 매년 그를 만나러 올 때마다 슬쩍 말콤에 추근했었는데 그 때마다 말콤 역시 호프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만 매티에게 은밀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 호프는 가족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말했고 다들 호프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인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날 저녁 호프는 이번 여름 마지막 주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만 초대해 작은 규모로 말과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A는 모두들 놀란 가운데 순간 매티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을 포착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호프는 헝가리에서 영화 촬영 중인 자신의 대모이자 유명 배우인 인 발레리 고든이 일정이 변경된 덕분에 LA에 살고 있는 그녀의 두 아들 킷 고든과 휴고 고든을 포함해 여름 내내 이곳에서 지내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가족들을 더 들뜨기 시작했고 매티는 그들이 오기 3일전부터 몸을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킷과 고든은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 그런 차는 흔한 것이 아니었고 매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발레리 고든은 완벽하게 스타일링 된 검은 머리에 값비싼 실크 셔츠, 주름 하나 없는 바지에 거대한 흰색 선글라스를 끼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완벽한 할리우드 스타답게 걸을 때도 레드 카벳을 밟는 듯 걸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열아홉 살 청년 킷 고든은 황금색 피부에 아름다운 적갈색 머리칼, 암색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메두사의 머리에 있는 뱀들 같았고 온 몸에 햇빛을 머금은, 마치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동상처럼 보였다. 그는 낮고 친밀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A는 그의 목소리마저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반면 휴고는 형에 비해 쇠약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가족들은 모두 킷에게 관심을 다 쏟았고 킷은 등장 시점부터 모두를 하나씩 매혹시키기 시작했고 특히 매티는 말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A 역시 그에게 한 눈에 반해버렸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가면서 매티와 킷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A는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자 사랑에 대한 동경과 강렬한 질투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킷은 자신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킷은 휴고가 경고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과 애정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사람이었고 A는 그에게 사악한 면모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또한 킷은 여전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티와 열정적인 애정 표현을 해댔다. 그럴수록 A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 갔다. 한편 온 가족들은 말콤이 다른 여자도 아닌 동성 친구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여름은 해피 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 말콤과 호프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이제 막 사랑에 대해 눈을 뜬 한 소년 혹은 소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여름과 다양한 사랑의 형태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멕 로소프 (Meg Rosoff)는 1989년 미국에서 런던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첫 번째 YA 소설이자 백만부 판매고를 기록한 'How I Live Now'를 쓰기 전에 광고 분야에서 15년 동안 일한 바 있다. 그녀는 데뷔작을 통해 Guardian Children's Prize, the Printz Award에서 수상했으며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이후 다섯 편의 작품을 통해 카네기 메달과 국립 도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